

구례군청 씨름단,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단체전 우승



결승서 안산시청 만나 최종 3대1로 우승 거머쥐어
매화급·국화급·무궁화급 개인전에서 각각 3위

구례군청 씨름단이 보성군에서 열린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7일간 열린 전국장사씨름대회의 단체전 결승전 상대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안산시청. 우승이 예상됐던 안산시청을 상대로 대한체육회장기 첫 대회의 값진 결과는 구례에 돌아갔다.
결승전 첫판은 구례군청 김시우 선수가 안산시청 김은별 선수를 2대0 스코어로 꺾으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둘째 판에서는 이세미 선수가 김다혜 선수를 상대로 2대1로 패하면서 1점을 내줬다.
이어 선재립 선수가 김단비 선수를, 엄하진 선수가 이재하 선수를 각각 2대0 스코어로 이

겨 최종 3대1로 구례군이 단체전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또 구례군청은 60kg 이하 매화급, 70kg 이하 국화급, 80kg 이하 무궁화급 개인전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김순호 군수는 "처음으로 개최된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구례군의 위상을 높였다"며 "더욱 노력해 전국 최고의 씨름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자 씨름의 발상지 구례군은 6월에는 구례 전국여자전통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전국체전 종목 중 씨름대회를 개최한다.

구례=박진호기자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단체전 우승한 구례군청 씨름단. (사진=구례군 제공)



7일 경기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KBL 챔피언결정전 안양KGC 대 서울SK 7차전 경기, 연장 끝 100대97로 서울을 꺾고 통합우승을 차지한 안양 구성원들이 자축하고 있다. 김상식 감독이 골망을 자르는 퍼포먼스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상식 감독 "이제는 농구와 인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삼공사, 2년 만에 챔피언 탈환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김상식 감독이 사령탑 첫 시즌을 화려하게 우승으로 장식했다.

인삼공사는 7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의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7차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100-97로 승리를 거뒀다.

시리즈 전적 4승3패로 2020-2021시즌 이후 두 시즌 만에 정상에 올랐다.

이번 시즌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김상식 감독은 지도자 커리어 첫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지휘하며 감격을 맛봤다.

김 감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감격스럽고,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내가 눈물 없는데 오랜만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했다. 이어 "걱정도, 마음고생도 많았다. 김승기 감독과 전성현(이상 캐터)이 떠나면서 중위권으로 평가 받을 때,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질책보다는 칭찬을 주로 했다"고 보았다.
또 "초반 레이스가 좋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정규리그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강팀이니까 괜찮다'고 선수들에게 주입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전 KBL 총재의 아들인 김 감독은 지도자로 오랜 기간 활동했지만, 인삼공사를 맡기 전까지 프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8-2009시즌 대구 오리온스 사령탑을 지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코치나 감독대행을 맡았다. 대행에서 감독으로 승진한 오리온스에서도 성적 부진으로 한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다.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적도 있지만 2021년 1월 국가대표 선수 차출과 관련해 KBL, 구단의 불편한 시선을 받으며 쓸쓸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감독은 "인삼공사에서 불러주기 전까지 농구는 이제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봤다. 제 주도에 가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감사하게 기회가 왔다"며 "마지막으로 볼레워보자고 마음먹었다. 마지막 기회라고 열심히 해보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구단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했다.

김 감독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은 통합우승을 이끈 비결 중 하나다.
그는 부인 후 선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선수 간 소통을 유도해 팀워크를 끌어올렸다. 동시에 팀 훈련을 즐기고 개인 훈련을 늘리는 등 선수단에 자유를 줬다.

다만 기존 전략을 고수하면서 단기간에 고전한 부분도 있다. 최승태 코치, 조성민 코치가 김 감독을 보필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김 감독은 "코치들에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말하라고 했다. 서로 의논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그동안 우승한 감독님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7차전까지 치르면서 정신적,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안희종에 대해선 "코치들과 마찬가지로 선수단에 대해서 나보다 잘 알고 있다. 내가 부드럽게 하면 희종이가 질책하고, 내가 질책하면 희종이가 다독이는 식으로 시즌을 치러왔다. 중간에서 교역할을 충실히 잘해줬다"고 했다.

15년 만에 KIA로 돌아온 심재학 단장 "이번엔 정말 잘하고파"

KIA 신입 단장 낙점... "팬들이 우선인 야구해야"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야구를 해야한다." 심재학(51)이 KIA 타이거즈 신입 단장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KIA는 8일 "심재학 해설위원을 신입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구단 발표 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심재학 신입 단장은 "시즌 중간에 팀에 합류하는 만큼 내가 뭘가를 하기보다 팀이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지난달 말 구단 관계자와 만난 면접 자리에서 KIA의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소신을 밝힌 심 단장은 선수단의 새로

운 수장으로 낙점됐다.

심 단장은 "팬들이 우선인 야구, 팬퍼스트 야구를 해야 한다. 팬들이 납득할 수 있고, 팬들과 같이 갈 수 있는 KIA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KIA는 개막 직전 장정석 전 단장이 '뒷문 논란'에 휩싸여 물러나면서 단장 자리를 비워둔 채 2023시즌을 맞았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발했지만 최근 흐름을 탄 KIA는 8일 현재 4위에 오르는 등 순위 싸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심 단장은 "시즌 중간에 들어가게 된 만큼 지금 내가 뭘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팀이 필

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단장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짚은 심 단장은 "더 많이 듣고, 봐야 할 것 같다. 내가 빨리 팀에 흡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단장의 KIA행은 15년 만이다.

1995년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입성한 심 단장은 현대 유니콘스와 두산 베어스를 거쳐 2004년 KIA로 이적했다. 그러나 KIA에서 뚜렷한 활약을 하지 못하고 2008년 은퇴했다.

심 단장은 "KIA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선수 때 뭘한 것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KIA를 위해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심 단장은 현역 은퇴 후 히어로즈에서 지



도자 생활을 했다. 2019년부터는 MBC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현장을 누볐고,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는 한국 야구대표팀 컬러 코치 및 타격

코치를 겸임하기도 했다.

KIA는 "심 단장은 프로 시절 타자와 투수를 모두 경험했고, 다년간의 지도자 생활과 해설위원 활동 등으로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단장 선임 이유를 밝혔다.

곧 광주로 이동할 예정인 심 단장은 오는 9일 선수단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주간 야구전망대 올해도 20승 선착, SSG의 질주 시작되나

오늘 KIA전 김광현-양현종 맞대결

디펜딩 챔피언 SSG 랜더스가 다시 질주를 시작한다.

SSG는 7일 키움 히어로즈와 연장 11회 승부 끝에 7-6으로 이겨 5연승 행진과 함께 시즌 20승(10패)에 선착했다.

2년 연속 20승 선전이다.

지난해 개막부터 정규시즌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일궈낸 SSG는 시즌 27번째 경기 만에 20승을 신고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경기가 더 걸렸지만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밟았다는 점은 다르지 않았다. 아직 완벽한 전력이 아니라 단 점에서 SSG의 선두 질주는 더 돋보인다.

SSG는 현재까지 선발 로테이션에 외국인 투수가 한 명만 들어있다. 에니 로메로가 일본 오니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서 당한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로메로의 대체 선수로 영입한 로에니스 엘리아스는 이날 말 1군에 합류할 전망이다.



SSG 랜더스 선수들. (사진=SSG 제공) SSG 랜더스 선수들. (사진=SSG 제공)

외인 투수의 공백에도 SSG의 마운드는 팀 평균자책점 3위(3.29)로 선전 중이다. 특히 지난해 평균자책점 4.68(6위)로 다소 불안감을

남겼던 구원진이 올해는 평균자책점 2.32(1위)로 맹활약하고 있다. 선두 굳히기를 노리는 SSG는 이번주 KIA 타

"김하성의 샌디에이고, 내년 다저스와 한국서 개막전"

"한국 팬들의 열정,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

한국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이 열릴 전망이다.

미국 ESPN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2024시즌 개막전을 한국에서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나머지 28개 팀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 적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일찍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도 설명했다.

MLB는 멕시코 몬테레이(1999년), 일본 도쿄(2000·2004·2008·2012·2019년), 호주 시드니

(2014년) 등에서 개막전을 소화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MLB 경기가 열린 적이 없다. 지난해 개최하려던 MLB 월드투어 코리아 시리즈도 국내 대행사 등 여러 문제 속에 무산됐다.

만약 내년 한국에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시즌 첫 경기를 한국에서 갖는다면 미국,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벌어지는 역대 8번째 MLB 개막전이 된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인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는 국내팬들에게도 친숙한 팀이다.

현재 샌디에이고에는 KBO리그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내야수 김하성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저스에는 과거 한국인 스타들이 몸담았다. 최초의 코리안 메이저리거 박찬호를 비롯해 서재용, 최희섭 등이 뛰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도 빅리그 입성 첫 해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다.

샌디에이고 지역지 샌디에이고 유니언-트리뷴에 따르면 김하성도 한국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반기고 있다. 김하성은 "우리 팀이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

게 돼 영광이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된다"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야구팬들의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들은 야구를 사랑하고, 다저스도 사랑한다. 그들은 박찬호가 있고, 류현진도 있었다. 다저스를 정말 잘 알고 있다. 정말 멋지고 역사적인 경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 "샌디에이고의 팬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우리 팀에도 한국에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고 보고 싶어할 것"이라며 샌디에이고 팀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MLB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며 국제 이벤트 마련에도 뜻을 모으고 있다.